

Contents

통계로 보는 국제물류

- 올해 세계 특송시장, 7.2% 성장 전망

물류정책·산업동향

1. 중국 '2020년 국가물류허브' 발표, 22개 물류허브 포함
2. CMA-CGM과 MSC, 트레이드렌즈와 시스템 통합 완료
3. 북미동향 '컨' 물동량과 미국 GDP의 상관관계 이완 조짐
4. 글로벌 화주·물류 기업, 선박 온실가스 배출저감 추진

공지사항

- 「16차 해외사업 투자설명회 - 미국편」 유튜브 공유

일시: 2020. 11. 4(수) ~ 11.18(수)

* 유튜브(Youtube) 링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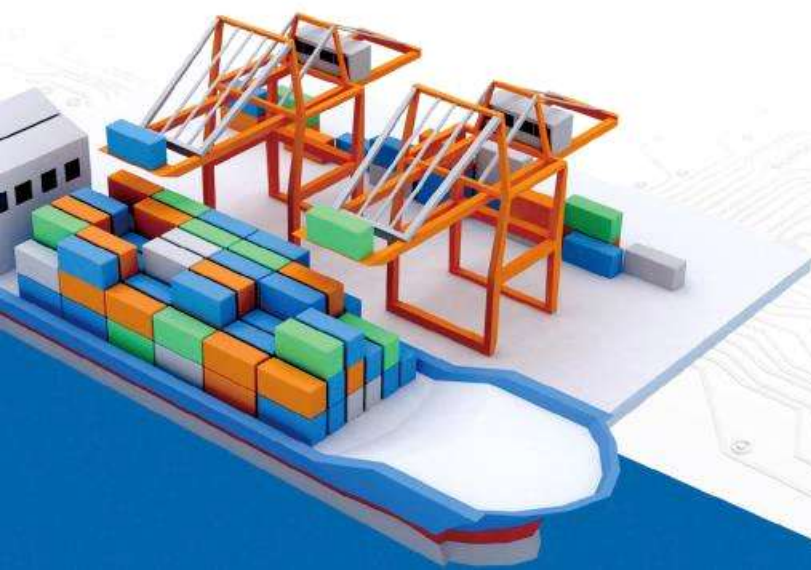
<https://youtu.be/czfFBqRiHcM>

※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 참조

명사 스피치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사업 중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사업을 통하여 부족한 도심 물류 인프라를 확충하고 근로여건 개선 및 물류 효율성을 제고하는 'K-스마트 물류'를 구현해갈 것이다.”

국토교통부 손병수 제2차관
(2020. 11. 2. /한국해운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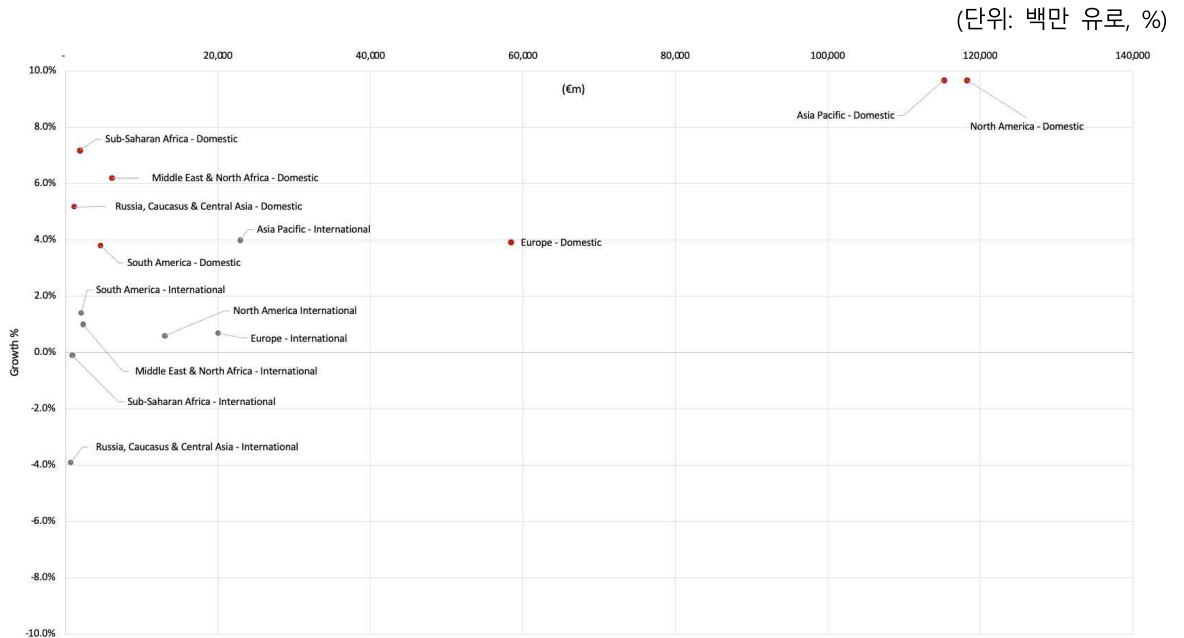




통계로 보는 국제물류

올해 세계 특송시장, 7.2% 성장 전망

세계 지역별 특송시장 규모 및 성장률 전망



자료: Transport Intelligence

- 물류 조사기관 Transport Intelligence(Ti)의 시장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세계 특송 시장은 7.2%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코로나19 이전의 시장 성장률은 7.9%로 전망되었으나 코로나19 이후 7.2%로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이후 세계적으로 전자상거래를 통한 소비자들의 구매, 특히 소매 부문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반적인 시장 성장률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 국내 특급운송 시장은 성장률 8.3%로 코로나19 이전 전망치(8.5%) 대비 소폭 감소함
 - 국제 특급운송 시장은 성장률 1.8%로 코로나19 이전 전망치(5.2%) 대비 크게 감소했으며 이는 2020년 상반기에 국제 B2B 특급운송 부문의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임
- 2020년 온라인 소매의 급격한 증가로 다른 물류 시장에 비해 높은 성장률 유지가 가능하게 됨
 - 국내 시장에서 온라인 소매로 높은 성장이 전망되는 지역은 북미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10%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참고자료 : www.gscintell.com(검색일: 2020.11.3.)

김한나 연구원

051-797-4670, h.kim@kmi.re.kr

물류정책·산업동향

중국 '2020년 국가물류허브' 발표, 22개 물류허브 포함

- 최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교통운수부는 공동으로 「2020년 국가물류허브 건설업무 실행에 관한 통지(关于做好2020年国家物流枢纽建设工作的通知)」(이하 「통지」)를 발표함
 - 동 「통지」를 통해 총 22개의 물류허브가 '2020년 국가물류허브'로 선정되었으며, 이들은 모두 지리적 인 강점 및 상대적으로 양호한 인프라 환경을 갖춘 곳들임
 - 이번에 선정된 22개 국가물류허브는 지리적으로 중국 동부지역에 7개, 중부지역에 4개 서부지역에 9개, 동북지역에 2개 분포되며, 중·서부지역에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보임
 - 2019년 1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교통운수부가 「국가물류허브 배치 및 건설 계획(国家物流枢纽布局和建设规划)」을 발표한 후 2019년과 이번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총 45개의 국가물류허브가 선정되었으며, 중국 27개 성·직할시에 고루 분포되어 있음
 - 국가물류허브는 ① 내륙항(Dry Port)형, ② 항만형, ③ 공항형, ④ 생산서비스형, ⑤ 상무서비스형, ⑥ 국경통상구형(陆上边境口岸型)으로 구분되며, 이번에 선정된 22개 물류허브 중에서 항만형은 총 8개가 포함됨

2020년 중국 국가물류허브 명단(22개)

No.	소재지(성·직할시)	물류허브	No.	소재지(성·직할시)	물류허브
1	베이징(北京)	베이징 공항형 물류허브	12	광시(广西)	친저우(钦州)-베이하이(北海)-팡청항(防城港) 항만형 물류허브
2	허베이(河北)	탕산(唐山) 항만형 물류허브	13	충칭(重庆)	충칭 내륙항형 물류허브
3	네이멍구(内蒙古)	만저우리(满洲里) 국경통상구형 물류허브	14	쓰촨(四川)	쑤이닝(遂宁) 내륙항형 물류허브
4	지린(吉林)	창춘(长春) 생산서비스형 물류허브	15	꾸이저우(贵州)	꾸이양(贵阳) 내륙항형 물류허브
5	장쑤(江苏)	쑤저우(苏州) 항만형 물류허브	16	윈난(云南)	쿤밍(昆明) 상무서비스형 물류허브
6	안후이(安徽)	우후(芜湖) 항만형 물류허브	17	산시(陕西)	옌안(延安) 내륙항형 물류허브
7	산둥(山东)	지난(济南) 상무서비스형 물류허브	18	칭하이(青海)	거얼무(格尔木) 내륙항형 물류허브
8	허난(河南)	뤄양(洛阳) 생산서비스형 물류허브	19	신장(新疆)	아라산커우(阿拉山口) 국경통상구형 물류허브
9	후베이(湖北)	우한(武汉) 항만형 물류허브	20	랴오닝성 다롄(大连)	다롄 항만형 물류허브
10	후난(湖南)	웨이양(岳阳) 항만형 물류허브	21	산둥성 칭다오(青岛)	칭다오 상무서비스형 물류허브
11	광둥(广东)	포산(佛山) 생산서비스형 물류허브	22	광둥성 선전(深圳)	선전 공항형 물류허브

자료 : <https://www.ndrc.gov.cn>

- 「통지」에서는 국가물류허브들이 국가 중점전략 추진 지원 및 지역 물류산업의 규모화와 효율 제고 등의 역할을 수행할 것을 제시함
 - 향후 국가물류허브들은 '일대일로' 및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성) 협동발전', '장강경제벨트',



- ‘웨강아오대만구(粤港澳大湾区: 광둥성·홍콩·마카오경제권)’, ‘장강삼각주 일체화발전’, ‘서부 육·해신통로’ 등 중점 국가전략 추진을 지원하고, 지역 내 분산된 물류자원 통합, 지역 국내·외 물류활동의 규모화 및 효율화, 업·다운 스트림 산업의 클러스터화 발전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계획임
- 또한, 「통지」에서는 각 성급 발전개혁위원회 및 교통운수 부문이 상호 협력 및 정책 조율, 업무 지도를 통해 물류허브 건설에 원활한 환경을 조성하며, 나아가 국가물류허브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을 당부함

■ 참고자료 : www.ndrc.gov.cn(검색일: 2020.11.4)

김세원 전문연구원
051-797-4660, ksw@kmi.re.kr

CMA-CGM과 MSC, 트레이드렌즈와 시스템 통합 완료

- 글로벌 컨테이너 운송선사인 프랑스 CMA-CGM과 스위스 MSC가 블록체인을 활용한 해운 플랫폼 트레이드렌즈(TradeLens)와의 시스템 통합을 완료함
 - 이로써 CMA-CGM과 MSC는 덴마크 선사 머스크와 함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글로벌 블록체인 물류 플랫폼인 트레이드렌즈의 운영을 주도하게 되었음
 - 두 선사가 공급망의 디지털화를 위해 트레이드렌즈에 합류하면서 글로벌 컨테이너 화물의 절반 이상이 블록체인 네트워크 플랫폼으로 이동하게 되었음
 - CMA-CGM과 MSC는 글로벌 컨테이너 운송시장에서 각각 2위와 4위를 차지하고 있음
- 글로벌 1위 컨테이너 선사인 머스크는 지난 2018년 IBM과 합작으로 트레이드렌즈를 출범하였음
 - 트레이드렌즈는 기존의 수동 페이퍼베이스(paper-based system) 시스템을 전자화시키고 글로벌 공급 사슬을 현대화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공급사슬의 모든 주체가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만들어짐
 - 트레이드렌즈는 IBM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솔루션과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물류 정보와 무역 관련 서류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컨테이너 온도, 무게 외에도 선박 입출항 시간, 선하증권 등의 모든 해운물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함
 - 또한 선사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항만 당국 및 물류 분야 관계자들이 모여 하나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구성원 간 정보를 더욱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현재 트레이드렌즈는 3,000만 개의 컨테이너 선적과 1,300만 개 정도의 운송장 추적 실적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현재 트레이드렌즈에는 싱가포르 PSA, 네덜란드 로테르담항, 호주 관세청 등 전 세계 170 여곳의 해운 항만 업·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일본 오션네트워크익스프레스(ONE), 독일 하팍로이드(Hapag-Lloyd), 머스크 계열사인 함부르크수드, 싱가포르 PIL, 이스라엘 짐라인 등 15개 선사가 참여하고 있음
 - 우리나라 선사로는 고려해운과 남성해운이 참여하고 있으며, 국내 해운물류정보망사업자인 케이엘넷도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초로 네트워크 사업자로 참여하고 있음
- 현재 트레이드 렌즈는 운영 초기 단계에도 불구하고 매일 200여만 개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개방성과 중립성을 바탕으로 더 많은 데이터 확보를 위해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음
 - 머스크의 경쟁사인 CMA-CGM, MSC, 하팍로이드, ONE 등이 트레이드렌즈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트레이드렌즈가 중립성, 보안의 안정성 등을 보장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음
 - 이처럼 트레이드렌즈는 모든 공급사슬 주체에게 개방되어 있는 동시에 중립적인 플랫폼으로 이용 주체의 어떠한 데이터도 머스크나 IBM이 접근하거나 관리할 수 없으며, 경쟁선사의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 이처럼 머스크는 트레이드렌즈를 통해 글로벌 물류 표준 플랫폼 구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참고자료 : www.container-mag.com(검색일: 2020.10.29.)

북미동향 '컨' 물동량과 미국 GDP의 상관관계 이완 조짐

- '북미동향(아시아발 북미항 정기항로)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율은 미국 GDP 성장률의 3배'라는 해운업계의 통설이 있으나, 최근 이러한 상관관계가 깨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음
- 코로나19 글로벌 확산의 영향으로 미국의 2사분기(4~6월) GDP(계절조정 후 확정치)가 전기 대비 31.4%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2008년에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의 GDP 성장률 하락폭을 기록했으며,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미국 경기 침체는 이미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를 초월한 것으로 평가됨
 - 이러한 미국의 경기 침체로 인해 해운업계 및 선사 관계자들은 북미동향 컨테이너 물동량(이하, 물동량)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했음
 - 실제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말까지 물동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며 2010년에 들어서야 회복세로 돌아섰음
- 각 컨테이너 선사는 4~6월에 물동량 수요가 바닥을 칠 것으로 전망하고 그에 맞추어 운항 서비스를 감편하는 체제로 재편했음
 - 중국의 춘절 연휴 이후에도 각 선사는 선복량 감편 체제를 유지했고 결편 등의 방식으로 지속적인 선복량 삭감을 시행했음
 - 여름 시즌 이후 북미동향 물동량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으나, 대부분의 선사는 2009년의 전례를 감안, 물동량 회복까지 적어도 1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을 견지했음
- 그러나 이후의 북미동향 물동량 회복세는 선사의 예상을 초월하며 급성장을 기록하고 있음
 - 5월의 물동량은 전년 동월 대비(이하 동일) 19% 감소였으나, 6월에는 7.5%로 감소세가 축소되었으며, 7월 들어서는 증가세로 전환했고 8월에는 단월 실적 최초로 180만 TEU를 초과하는 기록적인 물동량을 기록했음
 - 이에 다급해진 각 선사는 서비스 증편 체제로 급전환했으나, 선사의 예상을 초월한 급속한 물동량 증가세로 현재 수급 부족이 빈발하고 있는 상황임
 - 그 결과, 아시아 지역 각 항만에서는 화물을 선적하지 못하는 롤오버(rollover) 현상이 속출하고 있으며, 북미항 컨테이너 운임이 기록적인 증가세 추이를 보이는 등 이상 기류가 흐르고 있음
- 그간 컨테이너 선사들은 코로나19의 위기에 대해 선복량 감축으로 운임 시황을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을 받아왔으나 여름 시즌 이후 상황 변화를 살펴봐야 함
 - 7월부터 점차 서비스 체제를 정상화해 왔으며, 8월에는 일부 선사가 임시 선박을 배치하는 등 오히려 예년보다 선복량 공급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남
 - 프랑스의 해운 전문 조사기관인 알파라이너에 의하면 9월 1일 시점으로 북미동향 선박 공급량은 전년 동월 대비 7% 증가했으며, 코로나19의 영향이 정점에 달했던 5월에 비해 선복량이 10만 TEU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선사의 계속된 선복량 투입에도 현재의 북미동향 물동량 증가세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8월의 물동량 실적은 3개월 전인 5월 실적 대비 60만 TEU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예를 들어, 일본발 북미항 연간 물동량이 약 50만 TEU임을 감안하면 단 3개월 만에 일본발 연간 물동량을 초월했다는 추산임

● 저가 생활용품 등 투입 물량 증가가 컨 물동량 증가를 견인함

- 원래 미국은 개인 소비가 GDP의 2/3를 점유할 정도로 구매력이 크고 국내 경기를 좌우하고 있음
-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소비자 행동이 위축되는 등 큰 변화는 있으나, 왕성한 구매의욕은 지속되고 있음
- 구체적으로 사치·고가품 구매는 저하했고 스포츠 용품 및 일용잡화 등의 구매는 호조를 띠고 있음
- 특히 1달러 쏙 등 저가격 점포의 매출이 높아졌고 통신 판매를 이용한 목재·페인트·공구류 등의 구매가 호조를 보이고 있음
- 이러한 저가품, 잡화류 등은 중국·베트남 등 아시아 지역으로부터의 수입이 대부분으로 구성됨
- 그 외, 미국의 또 다른 수입처인 남미·유럽 지역 공급원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침체에 빠진 것이 아시아 지역 발 수입 물동량 점유율 상승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남
- 현재의 북미동향 물동량 급증세는 금년 중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향후의 추이 변화를 면밀히 관측할 필요가 있음
- 코로나19 글로벌 확산의 영향으로 기존의 북미동향 컨테이너 물동량 전망이 어려워진 현 상황으로 볼 때, 향후 이러한 글로벌 쇼크 시의 예측 신뢰도 고도화를 위한 연구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됨

■ 참고자료 : www.marinavi.com(검색일: 2020.11.2.)

한성일 부연구위원

051-797-4781, han@kmi.re.kr



글로벌 화주·물류 기업, 선박 온실가스 배출저감 추진

- 전 세계적으로 선박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화주·물류 기업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확산되고 있음
 - 국제해사기구(IMO)는 2030년까지 선박 배출 온실가스의 40% 감축을 목표로 함
 - 글로벌 화주·물류 기업을 중심으로 국제해운 분야 등의 온실가스 배출저감을 위해 다양한 방안이 시도되고 있음
- 카길(Cargill), 트라피규라(Trafigura), 셸(Shell) 등 글로벌 화주기업들이 국제해운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노력에 동참하기로 함
 - 이들은 상품거래 화주기업으로 구성된 세계해사포럼(Global Maritime Forum)의 회원사들로 해운기업에 대해 친환경 평가를 하여 향후 선박용선을 결정할 예정임
 - 17개 주요 화주기업들은 해상화물헌장(Sea Cargo Charter)이라는 공동 기준을 도입하여 온실가스 배출 등에 대한 정량적 평가와 공개를 통해 지속가능한 해상운송을 추진할 계획임
- 한편 곡물 메이저 카길은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함
 - 카길은 풍력을 이용한 날개돛(wing sail)을 중국의 조선설계 기업인 델타마린(Deltamarin)과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음
 - 이 돛은 45m 길이로 유조선, 화물선 등에 2022년까지 장착될 계획으로 이산화탄소 20% 감축이 기대됨
 - 한편 카길은 10년 전 화물선에 돛 대신 연을 활용한 프로젝트 스카이세일(SkySail)을 추진한 바 있음
- 글로벌 물류기업들도 운송 분야의 온실가스 저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대표적으로 글로벌 물류기업인 어질리티(Agility)는 탄소배출제로연대(Getting to Zero 2030 Coalition)에 가입하여 2025년까지 자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25% 줄일 계획임
 - 탄소배출제로연대는 세계해사포럼(Global Maritime Forum),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등이 구축한 파트너십으로 해운 분야의 130 여개 기업 및 단체가 가입함
 - 어질리티는 고객의 공급사슬 상 온실가스 배출, 비용 등을 분석하여 화물통합(consolidation), 운송모드 전환(switching) 또는 복합(mixing) 등의 전략을 제시하고 있음
- 해운 생태계의 핵심 요소인 선박금융 기관도 파트너십 결성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 노력에 나서고 있음
 - 해운산업의 탄소배출량 감축을 장려하기 위해 글로벌 선박금융 기관들은 포세이돈 원칙 (Poseidon Principles)을 마련하여 해운기업의 기후연계성 측면에서 탄소배출량 등을 평가하여 대출 등의 기준으로 활용함
 - 이와 같이 해운물류 생태계의 참여자들이 자발적으로 친환경 운송에 적극 동참하고 있음

■ 참고자료 : www.maritime-executive.com(검색일: 2020.11.2.), www.seatrade-maritime.com(검색일: 2020.11.2.), www.theloadstar.com(검색일: 2020.11.2.), www.tradewindsnews.com(검색일: 2020.11.2.)

공지사항

「16차 해외사업 투자설명회 - 미국편」 유튜브 공유

-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16차 해외사업 투자설명회 - 미국편」을 유튜브 채널에 공유하였으니 적극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본 투자설명회는 미국 동부지역 투자유망사업 정보를 공유하고,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었으며,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관계자를 비롯한 미국 조지아 주 정부, 미국 우리 물류기업 관계자, 국제물류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주제발표와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Zoom을 통한 실시간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유튜브(Youtube) 채널에 설명회 영상을 공유하였습니다. 영상은 11.4(수)부터 11.18(수)까지 게재될 예정입니다.

- 유튜브 채널 및 투자설명회 링크
- 공유 기간 : 2020. 11. 4(수)~11.18(수)
 - 주제 : 미국 동부 지역의 유망 투자사업 정보공유 및 관계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설명회 링크 : <https://youtu.be/czFFBqRiHcM>
 - 유튜브 채널 :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검색 혹은
<https://www.youtube.com/channel/UCzU7uOfuXJVd9VeJPk0IAeg>

프로그램	
발표1	미국 3PL 물류시장의 특성 및 진출 유망지역 전망 박남 (DSF L&I, 대표)
발표2	미국 동부지역 항만물류시장 특성 및 진출 유망사업 전망 John Park (Webtrans Logistics Inc., 대표)
발표3	조지아주 물류 및 운송 생태계 (Georgia's Logistics and Transportation Ecosystem) Emily Butler (Center of Innovation for Logistics Georgia Department of Economic Development, 국장)
발표4	사바나항 가든시티 터미널: 미국 동남부 관문 (Port of Savannah Garden City Terminal: The Southeast Gateway for the U.S.) Stacy B. Watson (Economic & Industrial Development Georgia Ports Authority, 이사)
발표5	미국 물류산업의 허브, 조지아주 Peter Underwood (State of Georgia-Korea office, 소장)
발표6	미 동안 Gate Port별 물류현황 및 향후 예상 최준석 (HMM 미주본부, 상무)

- 투자설명회 발표자료(PPT)는 아래의 담당자에게 요청 시 공유 가능함
□ 기타 사항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051-797-4770, 051-797-4588)로 문의 바람